

임기영 '야구의 재개발'



KIA 등번호 38→17로 변경... 새 마음가짐으로 새출발
2017년 두차례 완봉승 등 총 8승 올리며 'V11' 기여
올 시즌 부상·부진에 고전... 내년 풀타임 목표 맹훈련

KIA 타이거즈의 '잠수함' 임기영이 새 번호를 달고 다시 뛴다. 임기영은 내년 시즌 38번 대신 1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른다. 새 번호, 새 마음으로 마운드에 서겠다는 각오다. 송은범의 FA 보상 선수로 한화에서 이적한 임기영은 KIA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2017년, 두차례 완봉승 포함 8승을 올리는 등 'V11'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후 부상과 부진으로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올 시즌에는 첫 등판에서 4이닝 8실점으로 부진했고, 부상까지 겹쳤다. 복귀 후에도 기복을 보이며 고전한 그는 마지막 세 경기에서 18이닝을 3.00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으며 선발 경쟁의 불씨를 살렸다.

강렬했던 2017년 이후 2년 연속 아쉬운 성적을 낸 임기영은 새 번호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경북고 출신 임기영은 "학교 다닐 때 17번이었다. 친구들이 좋았을 때 번호를 달면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좋았던 시절의 기분을 살려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번호 변경 이유를 밝혔다. 17번을 달기까지 난관(?)은 있었다. 친구 김윤동도 17번에 욕심을 냈고, 선배 고장혁이 먼저 17번을 짊어졌기 때문이다. 임기영은 "예전부터 17번을 달고 싶었는데 한화에서는 박정진 선배님이 쓰셨고, KIA 와서는 서동욱 선배님의 번호였다. 이번에 번호가 나왔는데 장혁이 형이 달겠다고 해서 계속 졸랐다가 '볼 때마다 때를 썼다. 나중에 형이 질려서 번호를 쓰라고 했다'고 웃었다.

17번을 달고 2017시즌의 위력을 되찾는 게 임기영의 목표다. 임기영은 "17년에는 마운드 올라가는 게 재미 있었다. 2-3점 줘도 선배들이 4-5점 뽑아주시고 이런 게 너무 좋았다. 그때는 두렵고 그런 것도 없었다. 작년부터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이런 게 많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스피드가 올라야 나머지 구종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난 것 같다. 밸런스 무시하고 던지기도 했다"며 "서재용 코치님께서 '마지막에 못 던져도 기회 줄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 할 것 하라'고 하셨다. 그 이야기 듣고 편하게 했던 것 같다. 또 시즌 중에 자세 교정을 하면서 스피드도 나오고 체인지업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스' 양현종은 임기영에게 또 다른 스승이다. 질문 많은 임기영이 가장 오랜 시간 붙잡고 있는 선배가 양현종이다. 임기영은 "경기 초반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현종이 형한테 '올라갈 때 무슨 생각 하냐고 물어봤는데 아웃카운트 딱 15개만 생각하고, 거기

서 줄여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세 경기때 플레이 볼 들어가기 전에 마운드 뒤에 숫자를 적었다. 15개 적고 이닝이 끝나면 12, 9개 그리고 5회부터는 무조건 3개만 잡자고 생각하고 했는데 잘 됐다"며 "초반에 안 좋다가 나중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페이스를) 찾아갔나?'고 물어봤다. 나름대로 세도 피칭(shadow pitching)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개막전'과 '풀타임'을 생각하며 2020시즌을 준비하고, 맛을 생각이다. 임기영은 "신인 때부터 항상 첫 목표는 개막전(개막 엔트리)이었다. 또 한 번도 풀타임을 뛰지 못했기 때문에 풀타임을 하고 싶다. 풀타임을 하면 기록이든 뭐든 따라오게 되어있다"며 "예전보다 진지하게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두산에서 (변)진수도 왔고 사이드 암 투수들도 많아졌다. 선발 경쟁도 치열해졌는데 내년엔 무조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열심히 준비해서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 등번호 가져가나

토론토 출국...배정시 첫 99번 선수

미국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마무리 짓고자 25일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한 왼손 투수 류현진(32)이 새 팀에서도 99번을 달까. 야구 통계 사이트인 베이스볼레퍼런스닷컴과 베이스볼알매뉴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1977년 창단이래 등번호 99번을 쓴 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류현진이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해 4년 8000만달러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99번을 입고 기자회견에 등장하면, 토론토 구단사에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 첫 등번호 99번 선수가 탄생한다. 류현진은 2006년 KBO리그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이래 프로에서 줄곧 99번을 달았다. 류현진은 별다른 뜻 없이 99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훗날 한화가 마지막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1999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뜻에서 99번을 계속 달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아이스하키의 나라인 '단풍국' 캐나다에서 '99'는 가장 존경받는 숫자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아이스하키의 살아 있는 전설로 추앙받는 캐나다 출신 웨인 그레츠키가 99번을 달았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는 2000년 2월 7일, 그레츠키의 99번을 지금도 유일한 전 구단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다. 메이저리그에선 최초의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의 42번이 유일한 전 구단 영구 결번이다. 이런 위상을 고려하면 류현진이 토론토에서 99번을 배정받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띤다. /연합뉴스

손흥민, 3경기 출전 금지 확정

잉글랜드축구협회, 토트넘 항소 기각

잉글랜드축구협회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가슴을 가격해 퇴장과 함께 3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손흥민(토트넘)의 징계가 과하다며 토트넘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주요 매체는 25일 "첼시에 0-2로 패할 때 나온 손흥민의 퇴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전금지 선수 명단에도 손흥민은 현시점으로 1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손흥민은 23일 첼시와 치른 2019-2020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후반 17분 상대 수비수 안토니오 루디거와 볼을 다투다 넘어진 뒤 발을 뻗어 루디거의 상체를 가격해 퇴장당했다. 넘어진 뒤 다리를 한 번 더 뻗어 발바닥이 루디거의 가슴 쪽으로 향한 장면이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확인돼 곧장 레드카드를 받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는 24일 3경기 출전금지 징계까지 내렸다. 징계 사유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손흥민은 지난달 에버턴전에서도 안드레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시도한 뒤 퇴장과 3경기 출전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를 통해 퇴장 자체가 철회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연합뉴스



토트넘은 이번에도 퇴장 명령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번에는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26일 브라이턴전을 시작으로 노리치시티(29일)와 사우샘프턴전(2020년 1월 2일)까지 내리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북한 여자축구 도쿄올림픽 포기

北 불참에 A조 한국·베트남·미얀마 3개국 경쟁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참가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제주도에서 예정됐던 남북 여자 축구 맞대결도 무산됐다. 축구 관계자는 25일 "북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불참을 통보했다"라며 "불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빠지면서 A조는 3개국이 최종예선을 치른다. 추가되는 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은 지난 10월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하우스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 추첨에서 한국,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B조에는 호주, 중국, 태국, 대만이 묶였다. 아시아에 배정된 여자축구 올림픽 출전권은 3장(개최국 일본 포함)이다. 최종예선 각 조 1, 2위 팀이 플레이오프(2020년 3월 6일~11일)에서 맞붙어 최종 2개 팀이 일본과 함께 올림픽 본선에 나선다. 최종예선 A조 경기는 2020년 2월 3-9일까지 제주도에서 펼쳐진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북한이 같은 조에 편성돼 내년 2월 9일 최종예선 A조 마지막 경기에서 사실상 조 1, 2위를 결정하는 대결을 펼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갑작스럽게 최종예선 출전을 포기하면서 베트남, 미얀마보다 전력이 앞서는 한국이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B조에서는 호주의 전력이 가장 강해 한국이 A조 1위를 하면 '해볼 만한 상대'인 중국과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최근 끝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중국과 0-0으로 비겼다. 아직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한국 여자축구는 북한의 불참으로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의 불참은 A조에서 한국 다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높은 베트남(32위)에도 희소식이 됐다. 베트남 매체인 VN익스프레스는 "북한이 참가를 포기하면서 베트남 여자 대표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갈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라며 "한국은 A조 최강팀이지만 미얀마는 최근 전력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강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